



Original Artic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im, Hyun-Sil¹⁾

1)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결혼 이주 여성의 현황과 문제: 새로운 여성간호 대상자의 출현

김 현 실¹⁾

1)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Abstract

Purpose: The findings of various studies and policy reports on marriage chang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its issue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Method:** Research objectives were accomplished b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The main areas of the literature review included married migrant women, its challenges, and current polici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Result:** Women migrating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re known to face various difficulties due to their migration. Some important obstacles women migrants face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cultural differences in daily lifestyle, language, food, health care services, cultural assumptions, gender structure, family relationships, expected roles within famil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more. The plights of married migrant women include commercializ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false information regarding the spouse, family abuse, insecure nationality, economic difficulty and unemployment, racial prejudice, and cultural maladjustment. Current support policies for migrant women living in Korea are suggested.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d with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y. In addition, the author suggests the

necessity of programs and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married migrant women's well-being based on women's health and family nursing dimensions.

Key words : Women, International Marriage, Korea, Migration

서 론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그 단적인 예가 다민족 국가화라 할 수 있다(Kwon & Park, 2007).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세계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현상에 근거하여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Lee, Kim, & Choi,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10여 년간 외국인 근로자 또는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등으로부터 온 여성 결혼 이주자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1990년 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혼인 건수의 13.6%에 이르고 있다(Korean National

투고일: 2008. 6. 26 1차심사완료일: 2008. 10. 10 2차심사완료일: 2008. 11. 17 최종심사완료일: 2008. 12. 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Hyun-Sil(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ung-Gu, Daegu 706-060, Korea

Tel: 82-53-770-2282 Fax: 82-53-770-2286 E-mail: hskim@dhu.ac.kr

Statistical Office, 2005).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여성의 전문 직종 진출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학력, 전문직 종사 여성일수록 사회적 성취에 가치를 두게 되고 결혼생활과 육아가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역할과 발전에 제약이 될 때 이들은 자신의 결혼을 결정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간 결혼제도는 젊었을 때 재원을 투자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노후 대비 생활 보험의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Michael, 2003). 따라서 이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에 투입되는 재원과 얻을 수 있는 이득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재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통한 노후 보장이라는 이득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결혼제도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결혼에 대한 회의적 생각으로 내국인 간의 혼인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이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이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는 아직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른 아시아권(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여성들의 국내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유도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간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며 이 중 일부는 의료전문인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되고 있다(Yonhap News, March 10, 2008). 특히 한국 사회는 결혼 이주 여성을 인신매매와 가정학대의 피해자, 한국인에 의해 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의 그들의 능력을 저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사실 한국인 중 제한된 수만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 이주 여성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복합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스스로 한국인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가부장제에서의 성 역할과 같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며 이들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비록 정부가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접근법은 한국어 교육, 문화적 동화와 같은 '한국 중심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을 뿐 여성 이주자의 고충과 그들의 목소리는 정부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의 실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것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여성 이주자들이 공적 수준에서 가시적이어야 하며 그들의 욕구와 의견을 표현하고, 질문 하고, 한

국 사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도 여성 이주자의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언어문제와 사회 고립과 같은 장애를 제거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입안과정 참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는 정부관련 부처의 정책 차원에서의 노력 뿐 아니라 가족건강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는 그들이 속한 가족의 문제로 보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결혼 이주 여성 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남편, 시집식구와의 소통문제, 자녀의 교육문제, 한국사회에 대한 자녀의 적응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고민 속에 놓여 있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며 단일민족임을 민족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 대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한국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 다양한 인종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호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대 한국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촉구를 권고 받은 바 있다(CERD, 2007).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매년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2007년 평가에서도 전체 55개 국가 중 '인종·양성 차별 정도'가 51위, '문화적 개방성'은 최하위인 55위, '이민법'이 49위였다.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에 근거한 순위인데, 외국인들이 그만큼 한국을 배타적이고 편협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CERD, 2007). 물론 이러한 외부의 지적에 대하여 반론 제기도 만만치 않다. 우선 단일민족과 민족적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과 국내 이민자의 생활 문제를 억지로 연관시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며 국내 외국인의 안위 문제의 원인이 마치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오랜 주장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는 것이다(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2007).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는 현실로 다가와 있으며 이들의 안위와 인권 문제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며 새로운 여성 건강·가족 건강 간호 대상자로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여성 간호의 대상자로서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의 현황과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간호학 차원에서의 중재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현황을 이해한다.
-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이민 결혼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해한다.
-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여성 간호 영역에서의 간호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본 문

1.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현황

국가 간 인구이동이 세계적 현상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새 삶을 찾고자하는 이주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한 해의 이주자는 대략 5,180,000명으로 이는 1995년 이래 7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에 걸쳐 연간 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주목하여야 할 일은 이주 인구의 남녀 성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 한국에 이주 한 남성의 수는 44.3% 증가한 반면 같은 해 여성 이주자의 수는 150.5%의 증가율을 보였다. 1990년 대 중반기 이후 우리나라 이주자 중 여성 증가율은 크게 늘고 있다(Kim, 2006) <Table 1>. 이주자의 여성화와 함께 한국 여성 이주자에게는 특별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비자발급 유형을 살펴 볼 때 취업 관련 비자는 대부분 이주 남성에게 발급 된 반면 여성에게는 취업 비자 발급율이 감소되는 추세로 성별 발급 비자 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 시민의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F-2 비자(거주자 비자)는 대부분 여성 이주자에게 발급되었다. 즉 여성 이주자에 대한 F-2 비자 발급율이 1995년(40.4%)에서 2005년(76.3%)에 이르러 크게 급증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남성이주자는 주로 고용 관련 이민으로 이들의 취업 비자 발급율은 1995년(70.0%)에서 2005년(83.3%)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NSO, April, 2006).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남성 이주자는 주로 고용 관련 이민인 반면 여성이주자는 국제결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간의 공식적 혼인신고의 수는 1990년에는 단지 619건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31,180건에 이르러 총 혼인신고의 9.9%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점차 더 보편화되어가고 있다(KNSO, April, 2006). 우리나라의 이민결혼은 현재 인터넷상의 결혼 중개업체 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인적 사항,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원하는 배우자를 주문하는 형태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2007).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형태는 특히 2000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급증원인은 이 시기에 국제결혼이 새로운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며 아울러 한국으로 시집오고자 하는 새로운 신부국(countries of brides)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Kim, 2006).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남성의 외국인 배우자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여성 이었으나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국 남성과 조선족 여성 간의 국제결혼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의 위장결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결혼은 1990년대 후반에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한국 남성과 필리핀, 태국,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간의 결혼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 방법을 살펴보면 1990년 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중 대부분은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이었으며 일본, 필리핀, 태국여성과의 결혼도 통일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경향은 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간의 결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몽골, 중앙아시아, 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출신 여성 이주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 국을 살펴보면 2006년 4월에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수는 55,408명으로 이 중 42.5%는 조선족, 20.7%는 중국, 20.3%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KNSO, April, 2006) <Figure 1>.

결혼 이주 여성의 연령을 살펴보면 이들은 평균 24세 그리고 한국인 남편은 평균 41세로 그들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였다. 부부간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보다 연상인 경우는 9%였고, 남편과 나이가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무려 86%였다. 그리고 남편이 5~9세 연상인 경우는 34%, 10~19세 연상인 경우는 30%, 그리고 20세 이상이나 연상인 경우도 4%나 있었다(Seol et al., 2005).

결혼 이주 여성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53%)이 가장 많으며, 중학교 또는 그 미만의 학력자는 26%이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22%였다. 여성 결혼 이주자의 학력은 출신 국 별로 차이가 있어서, 학력이 높은 집단은 구소련, 중국한족과 일본 여성이었고, 학력이 낮은 집단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여성이었다(Seol et al., 2005). 결혼 이주여성의 거주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3/4 정도는 도시에서 그리고 나머지 1/4 정도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로의 결혼 이주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농촌 노동자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 이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Lee,

2005). 전체 여성 결혼 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농촌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 여성으로 그들의 5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다른 여성 결혼 이주자에 비해 중국동포 여성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8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3%, 사별이 2%, 별거나 이혼인 경우가 12%로 나타났다. 별거와 이혼의 사유로 가장 꼽히는 것은 남편의 상사적인 구타와 도박, 협박, 현금 갈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Seol et al., 2005).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출신 국 별로 본인 혼자 사는 경우와 핵가족으로 사는 경우 및 확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경우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인 혼자 사는 경우는 중국동포(12%)와 중국한족(19%)이 많은 편이었다. 핵가족으로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일본(76%), 몽골(71%) 및 기타(88%) 외국인 여성에게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시댁 식구와 함께 사는 경우는 특히 필리핀(44%), 베트남

(52%) 여성에게 많은 편이었다(Seol et al., 2005).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편을 사랑해서(37%)”, 또는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한국에서 살기 위하여(30%)”이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취업여부 및 종사 직업을 살펴보면 60% 정도가 현재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52%가 음식점 종업원, 주방장, 가정부 등 서비스직, 14%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13%는 교사나 자영업자 등 전문경영직으로 일하고 있었다(Seol et al., 2005).

2. 결혼 이주와 관련된 문제점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결혼 이주 여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한국이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비롯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이민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크게 이주여성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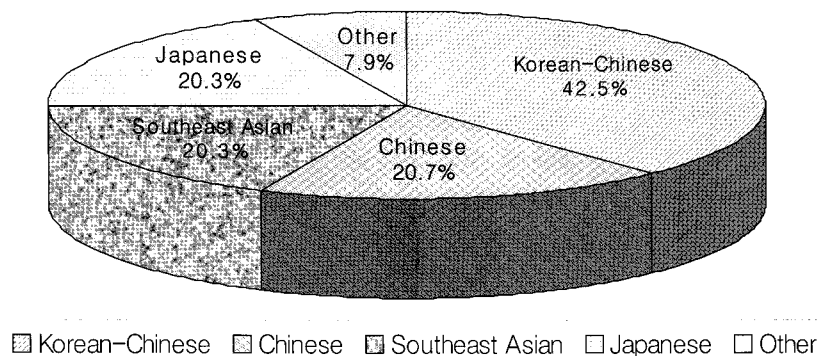
1) 결혼 이주 여성의 개인적 측면

건강 문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l et al., 2005). 우선 신체적 질병 이환상태를 살펴보면 빈혈(12.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알레르기 질환 (10.6%), 위·십이지장 궤양 (8.0%), 천식 (5.5%), 자궁근종 (5.1%), 고혈압 (4.5%)의 순서로 흔한 질환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빈혈,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은 도시나 농촌 구분 없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환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한 건강 교육 및 간호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모성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임신을 위하여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임신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 결혼 이주 여성의 11.4%, 자연 유산 경험율은

<Table 1> Number of immigrants by sex
(Republic of Korea, 1995-2005)

Year	Total	Female	Male
1995	2,923,642	905,524	2,018,118
1996	2,880,332	900,264	1,980,068
1997	3,088,889	1,035,021	2,053,868
1998	3,506,154	1,331,637	2,174,517
1999	3,920,909	1,508,126	2,412,783
2000	4,370,596	1,705,151	2,665,445
2001	4,275,696	1,666,891	2,608,805
2002	4,392,725	1,690,358	2,702,367
2003	3,849,950	1,446,670	2,403,280
2004	4,929,517	2,033,279	2,896,238
2005	5,179,848	2,268,389	2,911,459
Change since 1995	+77.2%	+150.5%	+44.3%

Sourc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kosis.nso.go.kr>)



<Figure 1> Nationality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Sour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pril, 2006)

9.1%, 임신 5 개월 이후의 사산 경험율은 2.1%, 조산 경험율은 1.4%,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은 0.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태 경험율은 전체 결혼 이주 여성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태의 이유로는 자연유산(29.0%), 가족계획상(21.0%), 본인의 건강 문제(5.9%), 태아의 건강 문제(5.6%), 남편의 반대(4.3%), 혼혈아 출산 기피(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eol et al., 2005). 물론 이러한 이환율이 우리나라 내국 기혼 여성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할 수 있겠다.

한편 결혼 이주 여성의 정신 건강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 거주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 연구에서 26.9%가 우울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Yang & Kim, 2007)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일반 도시 주부의 28%가 우울집단인 선행연구(Park & Yoo, 1999)와 비교하였을 때 결혼 이주 여성이 일반 여성 보다 더 우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Seol 등(2005)의 연구에서도 결혼 이주 여성과 일반 여성과의 우울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사회적 지지 망이 협소하며 언어소통 문제와 생활 방식 및 가치관의 차이로 경험하는 갈등 수준이 일반인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적응상의 문제들이 가중 될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은 일반 여성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Yang & Kim, 2007).

가정 학대 및 가정 폭력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특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경찰 보호 서비스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착취와 여러 유형의 가정 학대에 노출되게 된다(Yang, 2005).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1%가 언어학대, 26.5%가 신체 학대, 23.1%가 성적 학대, 그리고 18.4%가 신체적 위협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Seol et al., 2005). 이러한 학대 발현율은 상업적 결혼과정,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의 부족, 가정 학대 예방 정책의 부재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 일 수 있다. 상업화된 결혼 과정은 여성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한 인간이라기보다 소유물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여성이 가족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여러 유형의 학대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가족들은 그녀가 단지 돈에 팔려서 애정 없는 늙은 남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은 감시당하게 되며 과외 활동은 통제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심은 여러 유형의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Financial News, July 14, 2005). 그러나 가정학대가 발생하였을 때조차도 결혼 이주 여성의 대부분은 사회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들 여성은 이런 사실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

으며 경찰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경찰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이들 여성은 남편이 강제로 한국을 떠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학대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에서는 외국인 아내의 10-13%가 가정 학대 상담 콜 센터를 이용하였다고 하며 8.0%는 경찰에 가정 학대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한다. 가정 학대를 경험하였으나 경찰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20.1%),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3.7%), 경찰에 대한 불신(12.7%), 자신의 거주상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10.3%), 배우자로부터 더 심한 학대를 당할까 배(9.9%) 순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Social Welfare, 2005).

경제적 빈곤 및 취업기회의 제한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고국보다 선진화 된 나라에서의 경제적 운택과 보나오는 생활을 위하여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농어촌 빈곤 계층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갈등과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게 된다(Park, J. S., 2007).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소 임금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Financial News, July 14, 2005; Seol et al., 2005). 이들의 경제적 빈곤은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구직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직장을 원하나 많은 수가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직장을 구한 경우도 비숙련 노동직이며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그들의 교육배경이나 고국에서의 직장 경력과는 무관한 일 들이었다. 일부 여성은 양육을 위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또는 일부 여성은 한국어를 하지 못하여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구직을 위한 언어 능력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이나 조선족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에게 보편적 문제이다 (Kang, N. Y., 2007). 사실 조선족 여성은 한국어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는 있으나 일부 의사표현의 차이가 직장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직장을 구한 일부 여성들도 고용주와 동료들의 인종 편견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Kim, 2006).

언어문제, 문화적 부적응과 몰이해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장애는 일상생활, 언어, 음식, 문화, 성적 조직구조, 가족 관계, 가족 내에서의 역할, 및 대인 관계 등에서의 문화적 차이라 할 수 있다(Park, E. J., 2007). 한국에서의 문화적, 사회적 기대는 여성 이주자에게는 매우 낮선 것이며 그들은 이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이들 중 가장 직접적 어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언어 문제이다. 물론 조선족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는 많은 문제가 없으나 대화, 화법, 어휘, 언어 속에 내포된

민감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 여성들의 언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주자가 점차 새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많은 문화적 차이는 점차 극복될 수 있으나 의사소통의 한계, 이로 인한 좌절감에서는 결코 자유로워 질 수가 없다(Choi, 2007).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 배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많은 대중매체가 이주 여성의 제한된 언어기술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도한 이래로 결혼 이주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Hong, 2007; An, 2007).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의 발음은 분명치 않으며 정확한 어순의 구사 또한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여성 이주자들은 공식적 만남에서 필요한 언어기술이 부족하며 어휘 사용능력도 결여되어 있다(Kang, N. Y., 2007). 이러한 한계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항상 가정 내에 존재하게 된다. 게다가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대인관계는 가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들은 병원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다. 이들은 말 그대로 생활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고국에서 고학력 출신으로 사회생활이 활발하였던 여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심각한 좌절감을 겪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실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또한 그들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에 대한 한국인의 냉담함에 의하여 더 악화된다는 것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족, 이웃, 상점주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를 조롱하거나 비난한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하고 결국 이들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시도조차 단념하게 된다(Choi, 2007).

가족 관계, 성적 구조, 예의범절 등에서 이민자의 문화와 한국인의 문화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과 한국인들은 이주 여성의 국가와 그들의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이주 여성 국가의 문화적 배경은 무시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일방적 동화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한국 사람들은 강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쉽게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한국 사람들은 또한 자신 보다 가난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출신 여성 이주자들은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 특히 한국인에 의해 둘러 싸여 있을

때 - 발견하게 된다. 문화적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언어, 음식, 예의범절 등에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Kang, H. J., 2007). 이주 여성을 받아들인 한국 가족은 또한 “가족에게 충성” “남편에게 복종”과 같은 한국인의 성적 역할을 이들 여성에게 강요한다. 사실 이들 가족은 많은 한국 여성들은 이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가부장적 성역할 구조를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Jung, 2007). 이러한 요구 속에서도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어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그들은 남성 중심의 가족 구조가 문제이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또한 배우자에게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러한 요구에 아직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책입안자들은 결혼 이주 여성들에 의해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2)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문화적 측면

이민결혼의 상업화 오늘날 국제결혼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화하여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결혼 중개업소나 특정 종교를 통한 결혼의 상업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은 대부분 한국 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 한국남성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오는 여성은 거의 대부분 한국 보다 저 개발 국가 출신 여성이며 이와 같은 국가 간 경제적 불균형은 인종 차별, 인권 침해, 결혼 이주 여성의 착취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욱이 일부 결혼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 분할 납부제” 등과 같은 인신매매의 의미를 내포하는 광고를 내보냄으로써 결혼 이주 여성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상품화는 결국 이들에 대한 인간적 존중마저도 외면 받게 만든다. 나아가 빈곤, 불신, 가정 학대는 그들의 삶을 더욱 문제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더욱이 결혼 이주 여성은 ‘저개발국가’ 출신이라는 데서 주로 비롯된 인종적 편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Kim, 2006).

배우자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 및 거짓 정보 결혼 이주 여성의 문제 중 하나는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한 조사(Seol et al., 2005)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 중 약 37%가 정신 건강 등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성격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받았다고 하며 28%는 배우자의 수입에 대하여 21%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20%는 배우자의 직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 결혼 이주 여성 중에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 까지도 남성 배우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었으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결혼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결혼 중개업소는 계약 파기에 따른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여 할 수 없이 결혼을 강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타의에 의한 결혼은 상업화된 결혼중개업소 뿐 아니라 통일교를 통한 합동결혼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여성들은 배우자와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 (Financial News, July 14, 2005).

불완전한 국적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적 취득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최소 대한민국 거주 2년 후에 배우자의 동의 하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경우에 시민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Kim, 2007). 무엇보다도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알 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심지어 여성 이주자가 이 절차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다. 배우자나 가족이 외국인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수동적이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이 필요한 서류 준비에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이 없다면 결혼 이주 여성 혼자서 이 절차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일단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신의 모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여야 하며 따라서 고국을 방문할 때 마다 비자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성 이주자 자신이 시민권 취득에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시민권이 없는 경우 여성은 배우자의 개인보증에 의존하여 생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녀의 거주상태는 불안정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가정 학대를 피해 헛터에서 난민신분을 신청하는 사이 남편이 개인 신원 보증을 해주지 않아 이 여성이 불법 체류 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Kim, 2006).

인종 차별 및 편견 결혼, 정착을 위하여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겪게 되는 심각한 장애 중 하나는 인종 편견과 사회적 배척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잦은 TV와 신문 방송으로 인하여 사회적 인식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한 만연되어 있다. 가장 흔한 편견은 “고국이 가난하여 단지 돈 때문에 한국에 시집온 여자, 고향에 돈을 부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언젠가 가족을 버리고 고국으로 도망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은 일반인 사이에서 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밀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인종차별은 그들이 저개발 빈곤 국가

출신이라는 데서도 비롯되고 있다(Park, E. J., 2007). 이러한 편견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족이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으므로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10년 이상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조차도 친구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의사소통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이주 여성 모두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나라나 다른 나라 여성들과는 사귀나 한국 여성과는 별로 교류가 없었다. 가족 외에는 한국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은 중요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갈 사람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다(Kim, 2006).

3.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 및 여성가족부등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은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나 성 산업(sex industry)으로부터 여성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Ministry of Health & Social Welfare, 2005). 2005년 이후에야 여성가족부는 가정 학대 피해 여성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 긴급전화(1366)의 개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시민단체 주관의 한국어 교실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또한 초보자용 한국어 교재와 4가지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된 모성 보호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 한국어 교실과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덧붙여 정부는 한국어, 한국 음식, 전통 문화 및 전통 예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Social Welfare, 2005). 이들 정책이 근거하여 2006년 4월에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정부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시민서비스 위원회, 기획예산부, 사회통합위원회 등이 함께 수행하는 ‘결혼 이주 여성, 그들의 가족과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지원 정책’을 선포하였다. 이 계획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정책 수행에 관한 지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 차원에서 적용되었다(Un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pril 26, 2006). 이 계획의 초점은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와 그들의 결혼과 정착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방법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중개업소에 대한 면허제가 도입되었다. 가족

갈등으로부터 야기된 불안정한 거주자 신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편이 보증을 취소할 경우 시민단체(NGO)의 확인서류를 받아주는 것으로 거주자 자격 보증 시스템을 개정하였다. 경제적 빈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최소생계보장법의 개정을 계획하였으며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정책 입안자와 사회복지 서비스 요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 훈련이 수행될 것이다. 이 계획에는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이 가능한 빨리 쉽게 정착하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어와 문화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현재 다양한 정부 관련 제도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회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실, 한국 전통 요리 교실, 전통 문화와 예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이주 여성의 문화 동화, “재 문화화(re-culturalization)”를 촉진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의 74%가 대부분 지자체와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실을 수강하였으며 44.6%가 한국 요리교실을 수강하였고, 34.7%가 전통 문화 교육을 받았으며 24%가 한국 예의범절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그러나 이러한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이러한 결혼 이주 여성 및 이들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연구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부족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 이웃, 동료로써 이들 이주 여성과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한국 문화에 편입, 동화시키려는 데만 주력함으로써 오히려 이는 이주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시키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직면하는 또 다른 장애를 낳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는 이러한 사회 통합 지원 대책이 지자체 별로 산발적, 일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결 론

국제결혼의 수적 증가와 결혼 이주 여성의 증대는 단일 민족과 문화적 동일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한국인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의 이슈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기피와 출산을 저하와 더불어 농촌에

서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 이주 여성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가 이들의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방치한 부분도 적지 않다. 2008년 3월 경북 경산에서 가정 학대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베트남 신부 투신자살 사건(Yonhap News, March 10, 2008)이 단적인 일례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국제결혼 관련 쟁점이 TV나 신문을 통하여 자주 보도됨으로써 국제결혼과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거주권, 빈곤 여성의 생계, 언어 문제 등이 가까운 미래에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단지 최소의 관심과 투자를 한다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Jeon(2007)은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자체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폐쇄적이고 닫힌 민족의식에 머물러 있는 한 비전이 없다”며 “앞으로 몇 십 년 후 우리사회에서 지역주의를 대신해서 인종주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문화의 배타적 편협성은 국가이미지 개선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경쟁력이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얘기다. 나아가 간호학은 이제 이러한 문제적 의식 전환에도 기여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간호학 차원에서의 중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과 언어문제는 이들에게 매우 시급한 문제로 간호학 교수들은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 한국어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과 이중 언어 자료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결혼 이주 여성의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동등하게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부부 가정 상담, 부모-자녀 문제 상담 등으로 이들의 정체성 혼동과 가족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간호학 교수들은 이들 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우리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자원이라는 시각 전환을 위한 의식개선 운동에 앞장서야 하며 나아가 이들을 위한 자조집단, 리더쉽 증진 프로그램, 임파워먼트 전략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의식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지역사회 간호학 차원에서 보건소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결혼 이주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포함시키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이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지역사회에 가정 학대 피해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아동·가족 간호, 지역사회 간호, 정신간호 차원에서의 통합 케어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는 현재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을 이주여성의 국적별/지역별 차원을 고려한 다 학제적 컨서시움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이들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 간 한국여성들은 이 땅에 여성인권을 수호하고 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결혼 이주 여성과 연대를 이루어 이들을 여성 인권 옹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향후 여성 간호학 영역에서의 도전적 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An, W. S. (2007). *A study on the expressive skill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Choi, J. M. (2007). *The effect of communication pattern, affective communication, social support on foreigner wives'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CERD) (200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U.N.
- Financial News (July 14, 2005). *Poverty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Financial News, Seoul.
- Hong, Y. S. (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wangju.
- Jeon, S. I. (2007). Retrieved June 10, 2007 from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
- Jung, S. H. (2007). *An explorative study on immigrant women's lives - focusing on the immigrant women in Hongseoung* -.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 Kang, N. Y. (2007). *Study in acquisition of Korean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married migrant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ang, H. J. (2007). *Immigrant women's desire for expressing and preserving the mother culture and their 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J. R. (2007). *The status of intermarriage women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Kim, Y. S. (2006).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migrants' cultural conflict experiences and policy measures for the solution*,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kosis.nso.go.kr>) (2005). *Korean Demographic profil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kosis.nso.go.kr>) (April, 2006). *Number of immigrants by sex, Republic of Korea, 1995-2005*,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Kwon, K. Y., & Park, K. W. (2007).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Jeolla Namdo. *Korean Soc Res*, 14, 187-219.
- Lee, H. K. (2005). Marriage migration to South Korea; Issues, problems, and responses. *J Korean Population*, 28(1), 73-106.
- Lee, S. J., Kim, Y. H., & Choi, J. S. (2005). *A study on globalization and migration of women in Asia*.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eoul.
- Michael, R. T. (2003). *An economic perspective on sex, marriag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United States*. Presented at an Emory University conference titled "Sex, marriage, and family & the religious of the Book: Modern problems, enduring solutions".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2007). *NGO Report under ICERD*. Seoul.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5). *The reality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their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 Park, J. S. (2007). *A study on the family conflict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immigrat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on.
- Park, E. J. (2007). *Inter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o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Park, J. H., & Yoo, Y. J. (1999). Individual and family rel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 wives' depression. *J Korean Fam Relationship*, 4(1), 91-119.
- Seol, D. H., Kim, Y. T., Kim, H. M., Yoon, H. S., Lee, H. K., Lee, K. T., Jung, G. S., Ju, Y. S., & Han, G. S. (2005). *Survey on international marriage female migrants and policy measures for health welfare support*,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 Un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pril 26, 2007). *Report; Policies making for social integration of the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amily*. Union of the Relevant Korean Government Ministries.
- Yang, J. H. (2005). *A study on the discrimination and the violence experiences of foreign migrant women in Korean - focusing on Gyeongnam*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 Health Soc Work*, 26, 79-110.
- Yonhap News (March 10, 2008). *A Vietnamese bride's suicide*. Yonhap News.